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 지리지 양식을 중심으로 -

김지현*

국문초록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면서 조선은 육로를 통해 명에 사신을 보낼 수 없었다. 이에 조선은 해로를 통하여 등주로 상륙하여 북경으로 가는 새로운 노정을 통해 명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바다를 지나는 사행은 1621년부터 대명외교가 단절되는 1637년까지 17년 동안 28차례 행해졌다. 이때의 사행을 기록한 사행문학은 현재까지 24종이 전한다.

24종의 사행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양식은 사행시, 일기체 산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특이하게 등주를 통해 추로지역을 거치는 사행을 서술한 작품 중에는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한 지리지 양식으로 서술한 작품이 나타난다.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한 일기체 산문인 이민성의 『계해조천록』 이후 각 노정별로 묶어 지리지로 서술한 김덕승의 『천사대관』과 남이웅의 『노정기』, 그리고 지도를 삼입한 정두원의 『조천기지도』가 전한다.

이러한 지리지 양식은 기행 사경의 성격을 가지는 해로사행 기록화도 함께 제작되었으며, 정두원의 『조천기지도』의 경우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더하였다. 이는 앞 시기의 일기체 산문 양식의 사행문학과는 변별되는 글쓰기 양식이다.

주제어 : 해로 사행, 등주, 추로지향, 인문지리지, 명청교체기, 지리지양식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학연구소 <연행록사전> 편찬팀 전임연구원

1. 서론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 또한 바꿔 놓았다. 조선에 군사를 원조 했던 명은 급격히 쇠락해 갔으며, 이를 틈타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다. 후금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1620년 요동을 점령하고 명을 압박하였다. 후금에 의해 요동이 막히면서 조선은 기존까지 다녔던 요동을 이용해 북경으로 가던 사행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해로를 통하여 명과 외교활동을 이어갔다. 해로를 통한 사행은 광해 13년(1621)부터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대명외교가 단절되는 인조 15년(1637)까지 총 17년 동안 지속되었다¹⁾. 이러한 대명 사행에서 사행로의 변화는 대명 사행을 다녀와서 작성한 사행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해로사행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경(安敬)의 『가해조천록(駕海朝天錄)』²⁾, 이민성(李民成)의 『계해조천록(癸亥朝天錄)』³⁾, 이덕형(李德

1) 해로를 이용한 조천사행은 조선건국 초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南京)이었던 14세기 말에도 행해졌다. 명 태조는 홍무연간(1368~1398)에 요동을 막고는 요동을 지나는 육로 사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조선 초 사신들은 배를 타고 산둥반도와 등주, 요동반도의 여순구(旅順口)를 거쳐 남경을 다녀왔다. 이후 1409년(태종 9) 진하사 권영균(權永均)의 연행 후 명 영락제의 명으로 육로사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태종실록』 태종 9년 윤4월 23일 을축.

2) 허경진, 『수로조천록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43집, 2009 ; 허경진·최해연, 『명청교체기 최초의 수로조천록-안경의 『가해조천록』』, 『중국학논총』 34집, 2011.

3) 박경은,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일상사 및 연행의 체험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5집, 2000 ; 문명순, 『경정 이민성의 시론』, 『한문학보』 11집, 2004 ; 이영춘, 『인조반정 후에 파견된 책봉주청사의 기록과 외교활동』, 『조선시대사학보』 59, 2011. ; 줄고, 『이민성의 『계해조천록』 소고』, 은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馨)의 『죽천항해록(竹泉航海錄)』⁴⁾, 홍익한(洪翼漢)의 『조천항해록(朝天航海錄)』⁵⁾, 전식(全愼)의 『조천록(朝天錄)』⁶⁾ 이흘(李屹)의 『조천일기(朝天日記)』⁷⁾, 김상헌(金尙憲)의 『조천록(朝天錄)』⁸⁾, 이안눌(李安訥)의 『조천록(朝天錄)』⁹⁾, 정두원(鄭斗源)의 『조천기지도(朝天記地圖)』¹⁰⁾, 홍호(洪鎬)의 『조천일기(朝天日記)』¹¹⁾, 김육(金堉)의 『조경일록(朝京日錄)』¹²⁾ 등이 있다. 주로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사행로의 변화로 인하여 앞선 시대의 사행문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유일하게 해로 사행문학에 나타난 바다라는 공간적 이미지와 의미를 추출하고자 노력한 연구가 있다¹³⁾.

-
- 4) 조규익, 「죽천행록 연구」,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임기중, 「항해조천도의 형성양상과 원본비정: 이덕형 가문의 항해일기와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9집, 2005.
- 5) 최윤정, 「명칭교체기 조선 문사의 사행체험-홍익한의 『조천항해록』을 중심으로」, 『연행록연구총서』 1권, 학고방, 2006.
- 6) 조창록, 「전식의 사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동방한문학』 46집, 2011, 65쪽
- 7) 조기영, 「설정 이흘의 『조천일기』 연구」, 『동양고전연구』 7집, 1996. ; 이정숙, 「설정 이흘의 『조천일기』 구두점과 주해 연구」,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황만기, 「청음 김상헌 『조천록』 고찰-한시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3집, 2009.
- 9) 배주연, 「명칭교체기 조선 문사 이안눌의 명 사행시 연구-『조천록』(1601), 『조천후록』(1632)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8집, 2006.
- 10)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연행록-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 9집, 2005 ; 임영걸, 「壺亭 鄭斗源의 『朝天記地圖』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1) 조창록, 「1632년의 해로사행과 홍호의 『조천일기』」, 『2014년도 온지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2014.
- 12) 이영춘, 「병자호란 전후의 조선명칭 관계와 김육의 『조경일록』」, 『조선시대사학보』 38집, 2006 ; 김영숙, 「명말의 중국사회와 조선 사신의 외교활동 - 김육의 『조경일록』과 『조천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1집, 2009.

본고는 먼저 해로 사행의 자료 현황과 서술 양식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해로 사행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이한 기록 양식인 지리지 양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해로 사행록 자료 현황과 형식적 양상

광해군 집권기의 해로사행은 1621년 진위사 권진기(權盡己) 사은사 최응허(崔應許)일행의 사행과 1622년 등극사 오윤겸(吳允謙), 성절사 이현영(李顯榮)까지 모두 4차례의 사행이 있다. 이중 사은사 최응허의 사행에서 서장관으로 참여했던 안경의 『가해조천록』과 바로 인조의 등극을 전하러 간 등극사였던 오윤겸(吳允謙)의 『해사조천일록(海槎朝天日錄)』이 전한다.

인조반정(1623) 이후 1637년 까지 모두 24차례의 사행이 행해졌으며, 대략 30여 종의 사행문학이 전한다. 명에 왕권승인을 주청하기 위해 파견된 책봉 주청사는 1623년 책봉주청사 이경전(李慶全)과 1624년 사은겸주청사 이덕형 사행이 대표적이었다. 1623년의 사행에는 주문사 이경전의 『석루선조조천록(石樓先祖朝天錄)』¹⁴⁾, 주문부사 윤훤(尹暄)의 『백사공항해노정일기(白沙公航海路程日記)』, 서장관 이민성의 『조천록』이 있으며, 1624년 사행에는 이덕형의 『죽천조천록』, 홍익한의 『화포조천항해록』이 전한다. 1623년 사은사 조즙(趙澫)의 『연행록(燕行錄)』, 1624년 동지 서장관 김덕승(金德承)의 『천사대관(天槎大觀)』, 1625년 성절사 전식의 『조천시(朝

13) 김지은, 『17세기 전반 해로사행문학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14) 이경전의 『석루선조조천록』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B161-0018)되어 있다. 현재 이 책은 희귀본으로 분류되어 존경각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석루선조조천록』은 이경전이 부사 윤훤과 서장관 이민성과 사행시 주고 받은 시를 모은 사행시집이다.

天詩)와 『사행록(使行錄)』, 1626년 동지사 남이웅의 『노정기(路程記)』, 성절겸사은진주사 김상헌의 『조천록』과 동지겸사은진주사 서장관으로 함께 갔던 김지수의 『조천록』, 1630년 진위사 정두원의 『조천기지도』까지가 해로 사행 중 중국 등주(登州)로 입항해서 추로지역을 거쳐 북경까지 가던 사행노정 속에 나온 사행문학이다.

정묘호란(1627) 이후 마지막 대명 사행까지 사행로는 중국 영원위 각화도로 입항해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가던 노정이었다. 이 시기 사행 문학은 1628년 동지겸성절사은사 서정관 신열도(申悅道)의 『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와 1629년 지하겸사은사 이홀의 『설정선생조천일기』, 1630년 동지사 고용후(高用厚)의 『조천록』, 1632년 주청부사 이안눌의 『조천후록』, 1632년 주청 서장관 홍호의 『조천일기』 그리고 명으로 갔던 마지막 사행을 기록한 1636년 사은겸 동지사 김육의 『조천록』, 『조천일록』과 서장관 이민영(李晩榮)의 『송정병자조천록(崇禎丙子朝天錄)』이 전한다.

해로 사행기의 사행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양식은 대체로 사행시와 일기체 산문이다. 사행시집은 이경전의 『석루선조조천록』·이민성의 『연사창수집』·전식의 『조천시』·김상헌의 『조천록』·김지수의 『조천록』·고용후의 『조천록』·이안눌의 『조천후록』·김육의 『조천록』 등이 전한다. 일기체 산문은 안경의 『가해조천록』·오윤겸의 『추탄동사조천일록』·윤환의 『백사공항해노정일기』·이민성의 『계해조천록』·조즙의 『연행록』·이덕형의 『죽천조천록』·홍익한의 『화포조천항해록』·전식의 『사행록』·신열도의 『조천시문견사건계』·이홀의 『설정선생조천일기』·홍호의 『조천일기』·김육의 『조경일록』·이민영의 『송병병자조천록』 등이 있다.

이중 사행시집과 일기체 산문을 함께 남긴 문인으로는 1623년 책봉주청사 서정관 이민성, 1625년 성절사 전식, 1636년 동지사 김육으로 이들은 일기와 시를 철저히 나누어 문집에 수록하였다. 1621년 사은사서장관 안

경의 『가해조천록』은 일기 속에 자신이 지은 시를 함께 수록하였는데, 안경처럼 산문과 운문을 함께 적고 있는 작품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로 사행에서만 나타난 산문 양식은 다른 시기와 달리 지리지 양식이었다. 처음에는 사행 문학 중 현장성을 중시하는 일기체 산문 속에 인문 지리지 양식이 합쳐져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김덕승의 『천사대관』, 남이웅의 『노정기』, 정두원의 『조천기지도』는 아예 인문지리지로 작성되었다.

현재 전하는 16세기 대명 사행문학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행년도	사행작품	연행록 전집수 록양상	작자	신분	작품 양식
1621년(광해13)	『駕海朝天錄』 ¹⁵⁾	×	安敬	사은사서장관	일기, 시
1622년(광해14)	『楸灘東槎朝天日錄』 ¹⁶⁾	×	吳允謙	하극사	일기
1623년(인조1)	『石樓先祖朝天錄』	×	李慶全	주문사책봉주청사	시
1623년(인조1)	『白沙公航海路程日記』	15	尹暄	주문사책봉주청부사	일기
1623년(인조1)	『癸亥朝天錄』(『敬亭集』 속집1~4)	14	李民宥	주문사책봉주청사 서장관	일기
1623년(인조1)	『燕槎唱酬集』 (『敬亭集』 권 6,7,8)		李民宥	주문사책봉주청사 서장관	시
1623년(인조1)	『燕行錄』	12	趙澈	사은사	일기(언해본)
1624년(인조2)	『竹泉朝天錄』 ¹⁷⁾	×	李德馨	주청사	일기, 그림
1624년(인조2)	『花浦朝天航海錄』	17	洪翼漢	주청사서장관	일기
1624년(인조2)	『天槎大觀』(『少痊集』2)	×	金德承	성절검동지 서장관	지리지, 그림
1625년(인조3)	『朝天詩』(『沙西集』1)	×	全湜	성절사	시
1625년(인조3)	『使行錄』(『沙西集』5) ¹⁸⁾	10	全湜	성절사	일기
1626년(인조4)	『路程記』(『市北遺稿』4)	×	南以雄	동지사	지리지
1626년(인조4)	『朝天錄』(『淸陰集』9)	13	金尙憲	성절겸사은진주사	시, 주문, 장계
1626년(인조4)	『朝天錄』(『苔川集』2)	17	金地粹	서장관	시
1628년(인조 5)	『戊辰朝天別章帖』	×	閔聖徽	등극검동지부사	시
1628년(인조5)	『朝天時間見事件啓』 (『懶齋文集』3)	×	申悅道	동지겸성절사은사 서장관	잡록, 주문, 장계

사행년도	사행작품	연행록 전집수 록양상	작자	신분	작품 양식
1629년(인조6)	『雪汀先生朝天日記』	13	李屹	진하겸사은사	일기
1630년(인조7)	『朝天記地圖』	×	鄭斗源	진위사	지리지, 지도, 주문, 장계
1630년(인조8)	『朝天錄』(『晴沙集』1)	16	高用厚	동지사	시
1632년(인조10)	『朝天後錄』(『東岳集』20)	15	李安訥	주청부사	시
1632년(인조10)	『朝天日記』(『無住遺稿』4)	17	洪鎬	서장관	일기
1636년(인조14)	『朝京日錄』 (『潛谷遺稿』14)19)	16	金堉	동지사	일기
1636년(인조14)	『朝天錄』(필사본)	16	金堉	동지사	시, 주문, 장계
1636년(인조14)	『崇禎丙子朝天錄』 (『雪海遺稿』3)	×	李晩榮	서장관	일기

- 15) 임기중은 『수로연행록과 수로연행도』(2004년)에서 이 작품을 1617년(광해 9, 천명 2)으로 소개하였다. 작품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천계(天啓) 1년 광해 13년(1621)으로 적고 있어 사행 간 년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621년으로 고친다. 또한 사행로가 해로로 바뀌게 된 것이 1621년 청이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육로를 거쳐 명나라로 갈 수가 없게 되면서 해로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 16) 이 책은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이 일본에 다녀온 기록인 『동사일록(東槎日錄)』과 명나라를 다녀온 『조천일록(朝天日錄)』이 합본된 책이다. 전체 58장 가운데 32장까지가 일본을 다녀온 일기이며, 33장부터 58장까지가 명나라를 다녀와서 쓴 일기이다. 여기서는 서명을 그대로 적었다. (고운기, 『추탄조천일록해제』, 『연행록해제』1, 동국대학교, 2005, 125쪽에서 재인용)
- 17) 이본으로 신준용 소장 필사본 『죽천유고(竹泉遺稿)』 속 『조천록』이 있다. 이 이본의 말미에 첨부되어 있는 발문에 의하면, 『조천록』이 병자호란 때 없어져서, 이덕형의 외손인 민상사가 사행 당시의 부사인 오숙의 집에서 『조천언록(朝天諺錄)』을 얻어 와 그 음과 뜻에 기대어 한자로 번역하고, 그 뒤 기암공(幾庵公)이 홍익한의 『화포선생조천향해록』과 제가에 전해지는 구문을 참조해서 고증했으며, 사행 기간 중 창화한 시작품들을 찾아 덧붙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김기중, 『조천록 해제』, 『연행록해제』2, 동국대학교, 2005, 102쪽에서 재인용) : 이화여대 도서관(청구번호 951.05-이 313)에도 『죽천조천록』이 소장되어 있다. 이화여대 도서관본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하였다.

3. 지리지 서술 양상의 특징

당시 대명 해로 사행 노정은 목숨을 걸고 험난한 바다를 건너가야 했기에²⁰⁾ 많은 이들이 병을 핑계로 사행에서 빠지려고 뇌물을 쓰기도 했지만²¹⁾, 중국의 추로(鄒魯)지역을 지났던 만큼 조선의 많은 문인들을 설레게 했던 노정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중국의 시문을 익히고 외우던 조선 문인들에게 있어서 중국 문인들의 자취와 숨결이 서린 중국 추로지역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보편적 중화질서 속에서 자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바다에 돛을 펼치고 풍랑 속 만 리 길을 가다 보면 교통과 고래, 악어 등이 아득한 노을 속에서 출몰하고 신기루와 해시(海市)가 도서(島嶼) 사이에서 눈을 현혹시키며 나타날 것이다. 여순(旅順)과 천진(天津)의 기슭을 스쳐 지나고 갈석(碣石)과 해대(海岱)의 항만을 경유, 등주(登州)에 배

18) 『연행록전집』 10권에는 『사서선생항해조천일록(沙西先生航海朝天日錄)』과 『사서집』 권 5(목판본/필사본 2종이 있다)에 있는 『사행록(槎行錄)』 2종류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사서선생항해조천일록』은 『사서집』 권 5에 보이는 『사행록』과 낱씨를 표기하는 부분 등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연행록전집』에 실려 있는 『사서선생항해조천일록』은 탈초본으로 보이며, 전식의 이 작품이 그의 문집과 달리 읽혀졌던 것 같다.

19) 『연행록전집』 16권에 『잠곡조천일기』는 『잠곡유고』에 있는 『조경일록』의 이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경일록』만 서술하였다.

20) 북경까지 가는 길목인 요동이 막히자 광해군 12년(1620)에 명나라 신종의 부음으로 명나라에 갔던 진향사(進香使) 유간(柳澗: 1554~1621), 진위사(陳慰使) 박이서(朴彝敍: 1561~1621) 일행이 광해군 13년(1621) 4월 아무 준비 없이 해로를 통해 귀국하다 불귀의 객이 되었으며, 광종의 대고를 진위하러 간 진위사 강욱(姜昱: 1558~1621)과 서장관 정응두(鄭應斗: 1557~1621)도 해로에서 익사하였다.

21) 고전번역 DB 『광해군 실록』 13년(1621) 4월 13일 일기.

를 정박하여 봉래각(蓬萊閣)에서 일출(日出)을 본 다음 한 무제(漢武帝)가 노닐었던 지부산(之罘山)과 진 시황(秦始皇)이 머물렀던 부향(阜鄉)을 찾아갈 것이며, 동정(銅井)과 주암(珠巖)에서는 당 태종(唐太宗)과 소동파(蘇東坡)의 시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인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제남(濟南), 성현의 고향인 추로(鄒魯)며 청제(靑齊), 즉묵(卽墨), 직하(稷下), 치민(淄澠) 등 번성한 지역에 가면 볼만한 고적(古跡)이 이루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연도(燕都)에 이르면 견고한 성과 해자(垓字), 웅장하고 미려한 궁궐, 크고 넓은 관청, 변화한 시가(市街),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학교, 엄숙한 제단과 종묘, 그리고 예악(禮樂)·문물(文物)·전장(典章)·제도(制度)의 규모와 절목 등이 모두 보는 이의 안목을 일신시킨다. 그리고 경절(慶節)인 동지(冬至)가 되어 조천궁(朝天宮)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날에는 만국의 사신이 회동하여 온갖 예물이 함께 올라오는데 각국 사신들의 의관과 언어, 풍속과 습상(習尙) 등도 자세히 물어 기록할 만하니, 보지 못한 곳을 볼 뿐만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차 군의 안목을 더 크게 틱우고 가슴을 더욱 넓힐 수 있어 빈 주머니로 갔다가 주머니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셈이 될 것이니, 그 소득이 어찌 넉넉하지 않겠는가.²²⁾

인용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인조 2년(1624) 동지 서장관으로 선발되어

22) 이정구, 『월사집』 권 40, <送賀至書狀官洪澤遠序>: (중략) 至於海上張帆, 風濤萬里, 蛟龍鯨鱓, 出沒於杳靄之中, 蜃樓海市, 眩晃於島嶼之間, 掠旅順天津之岸, 經碣石海岱之灣, 泊于登州, 觀日出於蓬萊之閣, 探之罘漢帝之遊, 問阜鄉秦皇之迹, 銅井珠巖, 讀唐宗坡翁之詩, 以至濟南人才之藪, 鄒魯聖賢之鄉, 靑齊, 卽墨, 稷下, 淄澠之盛, 古跡之可觀者, 不可殫記, 逮至燕都, 則城池之壯固, 宮闕之雄麗, 省曹之弘敞, 街市之紛華, 饗序之絃誦, 壇廟之清肅, 禮樂文物典章制度之規模節目, 皆可一新觀瞻, 而至於賀至慶節之時, 朝天宮演儀之日, 則萬國會同, 玉帛咸造, 其衣冠語音風俗習尙, 亦可以採訪而記載, 則不但觀夫所未觀之地, 亦當觀夫所未觀之人, 將見君眼孔甚大, 胸次益寬, 虛而往實而返, 所得豈不富乎, (중략)(고전번역원 DB 국역본 참고)

북경으로 가게 된 홍익한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실제 등주(登州)에는 불만 한 역사적 경물이 많다. 봉래각(蓬萊閣)에서의 일출(日出), 한 무제(漢武帝)가 노닐었던 지부산(之罘山), 진시황(秦始皇)이 머물렀던 부향(阜鄉), 당 태종(唐太宗)의 흔적이 있는 동정(銅井)과 주암(珠巖)이 있으며, 소동파(蘇東坡)가 해시(海市)를 읊은 곳이 또한 이곳이다. 등주를 지나 북경으로 가는 사행 노정은 인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제남(濟南), 성현의 고향인 추로(鄒魯)며 청제(靑齊), 즉묵(卽墨), 직하(稷下), 치민(淄澠) 등 중화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지역을 두루 지나게 되는 것이기에 불만한 고적(古跡)이 이루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다. 이정구는 홍익한에게 힘든 해로를 잘 견디고 등주에 도착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 고적 등의 볼거리를 두루 보게 될 것이며, 북경에서도 견고한 성과 해자(壕字)· 웅장하고 미려한 궁궐· 크고 넓은 관청· 변화한 시가(市街)·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학교· 엄숙한 제단과 종묘· 예악(禮樂)· 문물(文物)· 전장(典章)· 제도(制度)의 규모와 절목 등을 두루 접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익한의 안목은 더 넓어지고 시문 또한 훌륭해질 것이라며, 부러움을 표현하였다.

인조 2년(1624) 인조의 등극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인조 즉위에 대한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아울러 주청하러 북경으로 갔던 사은겸주청부사 오숙(吳翮)에게 장유(張維)가 써 준 편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유도 오숙에게 험한 바닷길을 넘어 도착하는 곳은 진시황 한무제의 역사와 고적이 있는 등주(登州)이며, 이곳으로부터 해대(海岱)와 제(齊)를 지나 북경(北京)에 이르게 될 때까지 웅장한 산하를 두루 보게 되고 풍요로운 명의 생활상과 북경의 으리으리한 성곽과 궁실, 명의 찬란한 예악 등을 두루 관람하고 탐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고는 이러한 경험은 오숙의 안목을 키우고 시문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²³⁾.

명나라는 쇠국정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조선인의 경우 쉽사리 중국을 여

행할 수 없었다. 조선 사신들도 반드시 정해진 사행로만 다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 사행은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중국의 추로지역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역사서 시문집에서 본 제(齊)·노(魯)·정(鄭) 등의 지역을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도 해로 사행을 가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이날은 50리를 가서 창락현(昌樂縣) 남관(南關)에서 유숙하였다. 이곳에서 한 수재(秀才)를 만났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관정(觀政) 왕응치(王應豸)의 아들인데 내주(萊州)에서 아버지를 따라 같이 왔습니다.”

하고, 나에게 묻기를,

“공이 국왕의 명을 받들고 상국에 사행(使行) 왔으니 체통이 매우 중하실텐데, 옥교(屋轎)를 버리고 말에 올라 초졸(草卒)한 행장으로 시인 묵객(詩人墨客)처럼 보이심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불초한 소생이 동해 가에 있어 일찍부터 중화(中華)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사행의 열에 참여하여 경전(經傳)과 역사책(史冊)에서 상상하던 바를 오늘날 목도하게 되었으니, 내가 말에 올라 채찍을

- 23) 장유, 『계곡집』 권 6, <送謝恩兼奏請副使吳肅羽朝京師序>: (중략) 高檣如虹, 大帆如雲, 凌洪濤撇巨浪, 一瞬千里, 但見蛟鼉出沒, 魚龍儵忽, 天水相盪, 晝夜冥茫而已, 經過之際, 有以想田橫義士及魯連, 子管, 幼安之遺風, 而安期, 羨門得仙靈而遊汗漫者, 今果在否, 則亦足以娛憂暢懷, 忘履險之危懼矣, 捨筏而登岸則登州也, 登州古嶠夷, 所謂東表絕域, 乃今歷數千里滄溟而始躡其地, 斯行也可不謂遠乎哉, 自是而行海岱燕齊之境千有餘里而後, 達于帝京, 其間山河之雄壯, 民物之繁阜, 城郭宮室之宏麗, 禮樂文采之焯焯, 皆得以覽觀而采訪焉, 於以發舒其胸襟, 恢廓其聞見, 開廣其知識, 不啻若出涯涘而觀大海, 昔人稱司馬子長爲壯遊, 以今觀之, 子長之遊, 何足稱焉, 沿洄大瀛海之中, 彷彿領略乎蓬萊, 方丈之勝者, 以視登會稽窺禹穴, 不幾於培塿蹄涔乎, 斯遊也亦可謂極天下之偉觀矣夫, (중략)(고전번역원 DB 국역본 참고)

드날리며 강산풍월(江山風月)로 벗을 삼고 온갖 민속(民俗)을 구경하여 훗날 생소한 손이 되지 않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소? 내 또 어찌 부녀자의 행색과 같이 보교(步輦)를 타고 장막에 내 형체를 숨기고 내 안계(眼界)를 가리겠소? 마땅히 긴 채찍과 쾌활한 준마를 타고 내키는 대로 달려 혹 이름난 화원(花園)을 구경하고 혹은 승지 명루(勝地名樓)에 오르며 혹은 선현의 유적을 찾아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소?”라 하였다.²⁴⁾

인용문은 홍익한이 창락현(昌樂縣) 남관(南關)에서 유숙할 때 만난 수재와 나눈 문답이다. 수재는 홍익한이 다른 사신들과는 달리 장막을 친 보교를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홍익한은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상상했던 바를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보교를 마다하였다고 답하였다. 앞 시기의 육로 사행 노정과 달리 등주에서 북경으로 가는 사행노정에 대한 홍익한의 기쁨이 그대로 드러난 문답인 것이다. 이 지역이 바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직접 보고 싶어 하던 추로(鄒魯) 지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홍익한의 기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육로 사행과 달리 해로사행을 이용한 사행노정은 조선 문인들이 가보고 싶었던 추로 지역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곳이다. 공맹(孔孟)의 고향인 추로(鄒魯)지역, 『맹자』의 무대인 제나라와 위나라, 중국의 역사서에

24) 홍익한, 『화포조천항해록』 권 1, 1624년 9월 19일: 是日行五十里, 宿昌樂縣南關裏, 遇一秀才, 自言王觀政, 應豸之子, 自萊州隨父同行云, 問余曰: “公奉國王命, 來聘上國, 禮面甚重, 而舍車跨馬, 一鞭行裝, 有同騷人墨客之澹泊, 何也?”. 余答曰: “款啓鯁生, 介在海隅, 嘗懷慕華之心, 今忝觀周之列, 而芸編汗竹之所想像者, 盡入今日之目前, 則盍吾以游騎吟鞭, 弄草嘲花, 酬應萬類, 不斷作異時之生客如何, 且余豈若小婦人然哉, 深車蔽帷, 粧束我形骸, 掩闕我心眼, 宜以長鞭快馬, 隨意縱鞭, 或穿過名園花竹, 或登臨勝地樓臺, 或冥搜古先遺風, 以寬了九雲夢胸襟, 不亦可乎!”

빠지지 않고 나오던 지역들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추체험의 공간이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넘치던 장소였다. 그래서인지 해로를 이용하여 도착한 등주지역부터 북경까지의 노정을 적은 사행록에서는 앞 시대와 달리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리지 양식이 일기체 산문에 습합되어 나타났다.

이민성의 『계해조천록』은 전반적으로 일기체 산문 양식이지만, 선사포에서 출항하여 북경에 도착하기까지는 일기체 양식과 더불어 지리지 양식을 더함으로써²⁵⁾, 선사포에서 등주까지의 항해에 대한 세세한 기록과 추로지역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²⁶⁾. 이민성은 등주에 도착한 날을 적은 일기에 선사포를 출발 등주에 도착하기까지의 해로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²⁷⁾. 등주로부터 북경에 이르기까지 각

25) 이민성보다 앞서 사행했던 안경과 오윤겸의 사행록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민성의 사행록의 특징이 인문지리적 정보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6일 장구현에 대한 이민성의 일기를 보면, 복생(伏生)의 묘와 서원, 범중엄(范仲淹)의 독서당 등 지나는 곳의 인물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7월初六日甲午, 到章丘縣. 朝發長山, 出西城門, 門外有河曰孝婦河, 擺船以渡. 過雍齒墓, 縣西十八里有伏生廟及書院, 乃伏生教授處, 又有范文正讀書堂, 懷范樓在其傍, 前有白蓮池, 范公本蘇人, 幼隨母適長山讀書, 卽此處也. 午憩鄒平縣, 城南之胡家店中火而行, 城內人物繁夥, 劉天使弘訓, 乃縣人云, 南望九節黃龍山, 世傳山下有太公釣魚處, 未知是否.) 오윤겸은 장구현에 대해 '(6월) 十九日, 晴. 到章丘縣, 知縣送酒饌, 卽回禮致謝. 自鄒平至章丘六十里. 知縣李開先'라고 간단하게 적고 있을 뿐이다.

26) 줄고, 앞의 논문.

27) 해로 노정에서 연안의 도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날씨, 그리고 도서마다 걸리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새로운 사행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사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해로 사행을 기록한 대부분의 작품에 나타난다. 그러나 해로 노정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인문지리지의 성격

일기에는 노정에 대한 ‘①명칭과 연혁 ②주변 마을과의 거리 ③명승지와 유적 그리고 문인의 시구 ④ 백성들의 풍속’의 순서대로 자신이 지나간 지역의 인문지리 정보에 대해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 특히 ③에서 그 지역과 관련 있는 명승지와 유적을 꼼꼼하게 소개함으로써 추로지역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가 이 사행록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 마치 가본 듯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민성의 사행록 이후 등주를 거쳐 북경으로 도착하는 사행을 기록한 사행록에서는 일기와 지리지가 합쳐진 작품이 아니라 아예 ‘지리지’로만 된 작품이 나오게 된다. 즉 사행 노정의 현장감을 적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식과 정보를 조직하여 하나의 저술로 만든 것이다. 지리지 양식의 사행 문학은 인조 2년(1624)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김덕승의 『천사대관(天槎大觀)』과 인조 4년(1626) 동지사로 갔던 남이웅의 『노정기(路程記)』²⁸⁾나 인조 8년(1630) 진위사 정두원의 『조천기지도(朝天記地圖)』가 있다. 이 지리지는 모두 각 지역의 지형물 및 사적을 소개하면서 유명 문인의 시문과 인물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며, 각 성읍의 건치 연혁과 민풍 등을 기록하고 있다.

- ① 황현(黃縣)은 한나라 때 동래군(東萊郡)에 속했고 당송(唐宋) 때에는 모두 등주(登州)에 속했다. 명나라는 이것을 따랐다. 부(府)로부터 서남

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해로 노정 속 연안 도서에 대한 자연 지리지의 성격이 강하다.

- 28) 남이웅의 『노정기』는 김덕승보다 2년 뒤의 사행을 기록한 것으로, 『노정기』는 ‘입치현’부터 노정이 뒤섞여 있으며, ‘안주목(安州牧)’으로 시작한 『천사대관』과는 달리, 바닷길의 ‘해도(海島)’부터 시작한다. 이같은 부분적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글을 대조하면 김덕승의 『천사대관』과 몇 글자만 차이를 보일 뿐 본문이 거의 흡사하다. 남이웅의 작품이 김덕승의 글을 그대로 필사한 것 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쪽으로 60리이다. 경계표에 내(萊)와 악(嶽)을 같이 우리러 볼 수 있다. 청양천(靑楊川)·여양천(女湯川)은 모두 북으로 흐르다가 홍수(滄水)에 합쳐져 바다로 들어간다. 홍수에는 다리가 있다. 진(晉) 노동자(盧童子)는 9세에 복령(茯苓)을 먹고 신선이 되었다. 현의 서남쪽 노산(盧山)이 이곳이다.

- ② 산 아래에는 연진궁(延眞宮)이 있는데 또한 도를 얻는 장소이며, 신선이 내려오는 곳이다. 비둘기가 바다에 떠 있는 재료로 집을 지었던 터에 노선여문(盧仙閨門)이라 표하였고, 노선승적(盧仙勝蹟)이라 걸려 있다. 당나라 때 충희진군(沖禧眞君)이라 봉해졌다. 마고(麻姑)는 여자 신선이다. 젊을 때 혼사가 정해졌으나 신랑이 죽자 부모가 다른 곳으로 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죽음을 맹세하며 시부모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먼 곳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봉양하였는데, 행인 중에 노인 하나가 말에게 먹일 물로 길어온 물을 청하자 마고가 거절하였다. 이에 노인이 말에게 물을 먹여주면 물을 길는 것을 면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채찍 하나를 주면서 항아리에 넣어 두라고 하였다. 그러자 물이 넘쳐 흘러 넉넉히 쓸 수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나 여자가 정처 없이 떠나가 버리자 시부모가 괴이하게 여겨서 항아리를 살펴보니 채찍만 있고 물은 없었다. 그리고 홀연히 마을 전체가 연못으로 변하였다. 나중에 보니 고여산(姑餘山)에서 도를 닦고 있으며, 양을 탄 노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곧 말에게 물을 먹이던 자로 여자의 왕부(王父: 할아버지)였다. 송나라 정화(政和) 연간에 진인에 봉하였다. 원나라 『이견지(夷堅志)』에 유씨의 이당(鯉堂)에 앞에 큰 회나무가 있었는데, 홀연히 꿈에 마고라고 칭하는 여관(女官)이 나와서는 이 나무로 사당을 수리하기를 원하다고 하였다. 유씨가 그것을 거짓으로 허락하였는데, 며칠 후 번개가 치고 바람이 일더니 나무가 있던 곳에서 없어져 마고묘 앞에 있었다. 중화(重和) 초에 사액하여 현이금표(顯異今表)라 하고 마고선리(麻姑仙里)라 했다.
- ③ 준견산(蹲犬山)은 남산에 있는데 개가 엎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한나라 유충(劉寵)이 이 산을 지날 때 개가 짖으니, ‘산신이 우리들에게 말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송나라 태조가 병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날 때에 개가 달려들어 물자, 채찍으로 쳐서 귀 한쪽을 끊었다. 이후 태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개가 바다로 옮겨 갔다. 내산(萊山)은 동남쪽에 있는데, 신선과 성인의 거처가 많다.

- ④ 내자성(萊子城)은 그 골짜기에 있는데, 바위를 뚫어 길을 내었다. 옛날 내자국(萊子國)으로 속칭 내자관(萊子關)이라 한다. 『좌전』에 제나라 왕이 내국을 치러 갈 때에 내나라 사람들이 정여자(正興子)를 사신으로 보내 속사위(夙沙衛)에게 말 100필을 바치게 하자, 제나라 군사들이 이곳에서 돌아갔다. 그 뒤에 다시 제나라가 내나라에 들어와서 내자(萊子)를 나라의 동쪽인 예(兪)에다 옮겼기에 동래(東萊)라고 하였다.
- ⑤ 울양산(蔚陽山)은 동쪽에 있으며, 아래에 제나라 변사였던 순우곤(淳于髡)의 묘가 있다. 현성(縣城)은 남쪽에 있는데, 본래 현후국(縣侯國)으로 한나라 때 현현(縣縣)이 되었다. 성 안에는 백지내군(百枝萊君)의 사당이 있다. 중랑성(中郎城)은 동쪽에 있다. 석륵(石勒)이 중랑장(中郎將) 석개(石開)를 보내어 성을 쌓아 바다를 방비케 하였다. 대입성(大入城)은 동북쪽에 있다. 사마의(司馬懿)가 동이(東夷)를 정벌할 때, 양식을 운반해 신라로 들어갈 때, 이 성을 쌓아서 곡식을 저장하였다. 서향성(徐鄉城)은 북쪽에 있다. 무제가 교동공(膠東公)의 왕자를 봉하여 서향후(徐鄉侯)로 삼았다. 사향성(土鄉城)은 서북쪽에 있다. 『한서』에 제나라에는 사향(土鄉)이 있고, 월나라에는 군자리(君子里)가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화대(寶花臺)는 서북쪽에 있으니 옛날 금화궁(金華宮)이다. 황산역(黃山驛)은 현 서쪽 60리에 있으며, 마을이 매우 번화하였다.²⁹⁾

29) 김덕승, 『천사대관』, <황현(黃縣)>: 黃縣, 漢屬東萊郡, 唐宋俱屬登州, 大明因之. 自府西南六十里也, 界標萊嶽具瞻, 青楊川·女湯川, 皆北流, 與泮水合而入海. 泮水有橋, 晉盧童子, 九歲食茯苓昇仙, 縣西南廬山是也. 山下延眞宮, 亦得道之所, 其所降之地. 自鳩浮海之村營一室, 表遺址以盧仙閣門, 揭盧仙勝迹, 唐封冲禧眞君. 麻姑者女仙也, 少時婚定而婿夭, 父母欲適他, 矢死不許, 歸事舅姑

김덕승의 『천사대관』 중에서 황현(黃縣)을 기술한 부분이다. 황현은 사신 일행이 등주에서 출발한 후 처음으로 묵는 곳이다. ①에서는 황현의 건치연혁과 황현을 지나는 하천과 산에 대해 적어 놓았다. ②에서는 황현 노산(廬山)에 전하는 마고신선에 대한 설화를 기록하였으며 ③에서는 황현에 있는 준견산(蹲犬山)과 송나라 태조의 전설을 적었으며, ④에서는 『좌전』에 보이는 내국(萊國)과 제나라와의 영토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적고 동래(東萊)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서술하였다. ⑤에서는 황현 주변의 역사적 인물과 지명에 대한 고증을 하고, 황산역의 위치와 마을에 대해 서술하였다.

- ① 창읍(昌邑)은 한나라 도창현(都昌縣)으로 북해군(北海郡)에 속했다가 당나라 때 폐하였다. 송나라 때 창읍을 두어 유주(濰州)에 속했다. 명나라 때에는 채주(萊州)에 속했다. 부 서쪽 120리에 있다.
- ② 경계 동쪽에 송나라 장원경(壯元卿) 곧 교수(膠水) 사람 채제(蔡齊)의 거처가 있다. 진사 시험에 장원으로 뽑혔는데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이

至孝，汲遠井以養，有行叟請飲馬其汲，女拒之，叟曰，馬飲免汲，仍贈一鞭，置于瓮而水溢用裕，踰數月，女去無處，舅姑怪而視瓮，有鞭無水，忽一村成淵，後見修道於姑餘山，騎羊而叟從，叟是前日飲馬者，而乃女之王父也，宋政和中，封真人。元『夷堅志』云，劉氏鯉堂前有大槐，忽夢一女官，稱麻姑，乞此樹修廟，劉謾許之。後數日，風雷大作，失槐所在，諸麻姑廟槐臥其前。重和初，賜額曰顯異，今表其鄉曰麻姑仙里。蹲犬山在南山，似犬蹲。漢劉寵過此山犬吠，寵曰，山神謂我也。宋太祖帶兵而過，有狗嚙之，太祖以鞭打斷一耳，太祖卽眞之後，狗移入海。萊山在東南，多仙聖所居。萊子城，在其峽間，鑿石通道，古萊子國，俗名萊子關，『左傳』齊侯伐萊，萊人使正與子賂夙沙衛，以索馬牛皆百匹，齊師乃還卽此，其後齊復入萊，遷萊子於郕，在國之東，故曰東萊。蔚陽山在東，下有淳于髡墓，齊之辯士。軹城在南，本軹侯國，漢爲軹縣，城中舊有百枝萊君祠，中郎城在東，石勒遣中郎將石開，築此防海。大入城在東北，司馬懿伐東夷，將運糧入新羅，築此以貯。徐鄉城在北，武帝封膠東共王子，爲徐鄉侯。土鄉城在西北，漢書齊有土鄉，越有君子里謂此。寶花臺在西北，古金華宮。黃山駟在縣西六十里，閭閻極侈。

단정, 엄숙하였다. 진종(眞宗)이 보고 사람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쪽에 두부하(杜阜河)가 있는데 마을의 인가가 매우 성하다. 유수제(漚水堤)가 동쪽으로 5리에 있는데 송나라 때 쌓아 유수(漚水)의 넘침을 막은 것이다. 신하(新河)가 두부하(杜阜河)의 서쪽에 있는데, 배로 통할 수 있다. 그 앞이 유수의 상류로 또한 목도(木道)를 이용하였다. 한신(韓信)이 용저(龍且)를 칠 때 낭사지계(囊沙之計)를 썼던 지역이다. 세속에서는 회하(淮河)라고도 부른다. 숭성사(崇聖寺)는 동쪽에 있는데 홍무 초에 중수한 것이다. (중략)

- ③ 타니교(佗泥橋)는 서쪽에 있는데 여염이 모두 사치스럽고 번성하였다.³⁰⁾

남이웅의 『노정기』에 있는 창읍(昌邑)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도 처음 ①에서는 창읍의 건치연혁을 소개하고 등주로부터 서쪽 120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적고 ②에서는 창읍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 사적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하였다. 한신이 용저를 물리칠 때 낭사지계(囊沙之計)를 사용했던 곳을 자세하게 고증하였으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고적지는 모두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③에서는 창읍에 속한 마을이 모두 번성하다고 적고는 창읍의 풍속은 사치스럽다고 했다.

김덕승과 남이웅의 두 작품 모두 해당 지역의 연혁·지세·풍속·인물·고사·유적·등등 인문 지리지로 서술된 것이다. 이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중국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체제와 구성이 비

30) 남이웅, 『시복유고』 권 4, 『노정기』, <昌邑>: 昌邑, 漢都昌縣, 屬北海郡, 唐廢. 宋置昌邑, 屬濰州. 大明屬萊州, 在府西百二十里也. 界東有宋壯元鄉, 乃膠水人, 蔡齊也, 舉進士第一, 儀狀俊偉, 舉止端肅, 眞宗見之, 曰得人. 西有杜阜河, 村煙極盛. 漚水隄在東五里, 宋時築, 以防漚濫. 新河在杜阜之西, 舡以通之, 其前是漚水之上流, 亦用木道也. 韓信伐龍且囊沙處, 俗呼淮河. 崇聖寺在東, 洪武初, 仍舊貫修. …… 중략 …… 佗泥橋, 在西, 閭閻侈盛.

슷하다. 『대명일통지』의 서술체계는 각 부(府)에 대한 ‘건치연혁·읍현·군명·형승·풍속·산천·토산·왕부·공서·학교·궁실·관량·사관·사묘·농묘·명환·인물·열녀’ 순이며, 『동국여지승람』은 각 부(府)의 ‘건치연혁·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성곽·봉수·궁실·학교·역원·교량·부방·공해·불우·사묘·농침·고적·명환·인물·효자·제영’의 서술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시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동국여지승람』에는 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대명일통지』보다 인문지리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 김덕승과 남이정의 두 작품도 『동국여지승람』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에 대한 시문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중국 요처에 대한 건치연혁·지세·풍속 등에 대한 정보는 『대명일통지』를 참고하여 요약해서 인용하였다³¹⁾. 사행 노정 중에서 당시 조선인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분량을 지리지 내에 할애하여 서술하였는데, 등주·청주·제남·임치현·덕주·북경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방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두원의 『조천기지도』는 이 시기에 간행된 『휘집 여도비고전서(彙集 輿圖備攷全書)』보다도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하다³²⁾. 그러나 중국의 지리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각 요처 부분마다 ‘신견(臣見), 신문(臣聞)’³³⁾을 덧붙여 자신이 직접 이곳을 지나면서 보고 들은 바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사행 노정의 현장감과 사실감을 더하였다.

이러한 지리지 양식의 글쓰기는 ‘등주를 거쳐 북경’으로 향하는 노정에

31) 김덕승, 남이응은 ‘건치연혁, 지세, 풍속’의 경우 『대명일통지』의 ‘건치연혁과 형승, 풍속’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정두원은 『조천기지도』 『회부역도(灰埠驛圖)』, 『청주도(靑州圖)』에서 『대명일통지』를 참고했음을 언급하였다.

32)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연행록-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 9집, 2005, 10쪽.

33) ‘신견(臣見), 신문(臣聞)’은 이 작품이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만 보이며, ‘조선 선사포에서 출발 - 등주 - 북경’까지만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이후 석다산에서 출항해서 각화도를 거쳐 영원위로 들어갔던 즉 인조 7년(1629) 진하겸 사은사 이홍의 『설정선생초천일기(雪汀先生朝天日記)』, 인조 10년(1632) 서장관 홍호의 『초천일기』, 인조 14년(1636) 동지사 김육의 『조경일록』에서는 자연 지리와 노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을 뿐 인문 지리적 정보는 거의 적지 않고 있다. 이들 사행록 속에 보이는 해로 연안 도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섬의 이름과 섬의 크기 그리고 각 섬들간의 거리 - 섬마다 항해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적은 것으로 섬의 풍속, 섬이 배출한 인물, 섬과 관련한 시문 등에 대한 인문지리 전반적 정보는 들어 있지 않다. 이는 해로 사행에 대한 안전한 사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원위-산해관-북경’까지의 사행 기록을 보면, 각 노정 사이에 있는 역참의 명칭과 역참간의 거리 등에 대한 간략 정보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지리지 양식의 사행록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볼 것은 ‘해로 사행 기록화’와의 관계이다. 이 당시 ‘선사포-등주-북경’으로 가는 대명 해로사행은 사행 노정을 각 요처별로 그려 칩(帖)으로 묶고 있다.

산 넘고 물 건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모은 것은 사신이 발해를 배로 건널 때의 위험과 연산에서의 눈서리의 고통이 움직이는 곳마다 완연히 눈 속에 있어서 항상 경계하는 바로 삼기 위한 바이다. 곧 이 그림이 비단 연(燕)과 제(齊) 사이의 승경·도읍의 변화한 유적을 그린 것만은 아니다. 아! 삼각산과 한강 사이에서 벼슬에서 물러나 이 그림을 본다면 부귀도 반드시 즐거운 것이 아니며, 월악산과 금호의 언덕에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도 이 그림을 본다면 빈천도 반드시 근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³⁴⁾.

34) 김덕승, 『소전집』 권 2. 『天槎大觀』并序: 卽其跋涉, 哀爲繪事, 使渤海舟楫之危, 燕山霜雪之苦, 隨處而宛在目中, 常有所戒. 則是圖也, 非特爲燕齊景物之勝,

김덕승이 직접 쓴 「천사대관」의 서문이다. 사행 노정별로 그림으로 그리고 첩으로 모았다고 서문에 적고 있다. 실제 「천사대관」 임치현(臨淄縣) 부분에 보면 ‘임치현의 그림을 살펴보면, 본디 기량(杞梁)·안영(晏嬰)의 2묘가 있는데, 그림을 서술한 부분에는 그것에 대한 서술이 없으니 아마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臨淄縣按圖, 本有杞梁·晏嬰二墓, 而圖說無之, 疑有闕文.)³⁵⁾’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천사대관」과 관련한 그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정두원의 『조천기지도』는 각 요처를 그린 지도를 먼저 놓고 그 다음 지리지가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조선조 대명 사행을 떠난 사신들은 사행 노정 속의 중국의 명승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와유로 삼고자 했었다. 1604년 광해군의 세장 책봉을 주청하러 갔던 정사 이정구는 화가 이신희(李信欽)을 대동해서 천단을 다녀온 후 옥하관에 머무르면서 천단(天壇)·만류장(萬柳庄)·이제묘(夷齊廟)·망해정(望海亭)을 그리게 하였는데, 각각의 그림을 모아 병풍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당시 부사로 갔던 민인백은 기록하고 있다³⁸⁾. 이러한 기록을 통

都邑繁華之蹟也。噫! 華山漢水之間, 委蛇而披此圖, 富貴未必爲樂, 月岳琴湖之畔, 捷遲而披此圖, 貧賤未必爲憂矣。

35) 김덕승, 『소전집』 권 2, 「천사대관」 임치현.

36) 현재 이 그림에 대한 기록은 <천사대관서문>과 여기 인용한 협주에 대한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그림이 김덕승이 사행을 갔을 때 함께 간 화원이 그린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협주에 대한 기록도 그 그림과 ‘임치현’ 조의 설명을 대조한 누군가(김덕승의 『문집』을 편찬한 사람)의 말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사행노정을 그린 그림이 있었던 것만 짐작할 뿐이다.

37) 『조천기지도』에서 보이는 지도의 특징은 각 지역의 성곽을 중심으로 산천이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성곽을 중심으로 그린 것은 정두원의 관심이 성곽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38) 민인백, 『태전집』 권 4, 「조천록」하, 9월 18일: (중략) 又往國子監, 謁先聖, 摩挲石鼓文而還, 又與月沙, 蒼石往觀天壇, 月沙帶畫工李信欽來, 留玉河之日, 令畫天壇, 萬柳庄, 夷齊廟, 望海亭于生綃施彩, 將以爲屏, 但形勝甚佳, 而不能盡模, 殊可恨也.

해 보면, 당대 사신들이 자신의 여행을 그림으로 그려 소장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대명 사행 노정 속에서 추로지역을 지나는 해로 사행 노정은 이러한 욕구가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한다. 따라서 1623년 이덕형의 해로사행을 그린 해로사행도의 제작은 이러한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만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완하는 지리지 양식의 사행록이 함께 제작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전하는 해로사행 기록화 중 하나인 《연행도폭》 계열 중 제 8폭 <유현(漣縣)>을 보면, 유현에 있는 주요 사적으로 ‘안평중고리(晏平仲古里)’와 ‘낭사상류(囊沙上流)’의 패방이 그려져 있다. 이 낭사상류는 창읍에 있는 유수의 상류에 전해지는 한나라 한신의 낭사지계와 관련 있는 곳이다. 해로사행 기록화는 항해의 노정을 기록하는 공적인 목적 외에도 명나라 경사로 가는 노정에 있는 주요 사적을 방문하고 그 견문과 감회를 시로 적는 기행사경(紀行寫景)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³⁹⁾. 이러한 기행사경화와 각 그림마다 그 지역에 대한 인문정보를 함께 적은 지리지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후금이 요동을 점령하면서 조선은 육로를 통해 명에 사신을 보낼 수 없었다. 이에 해로를 통하여 등주로 상륙하여 북경으로 가는 새로운 노정을 통해 명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바다를 지나는 사행은 1621년부터 대명

39) 정은주, 『조선시대 명청사행관계 회화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외교가 단절되는 1637년까지 17년 동안 28차례 행해졌다. 이때의 사행을 기록한 사행문학은 현재까지 24종이 전한다.

24종의 사행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양식은 사행시, 일기체 산문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특이하게 등주를 통해 추로지역을 거치는 사행을 서술한 작품 중에는 인문지리를 중심으로 한 지리지 양식으로 서술한 작품이 나타난다.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한 이민성이 『계해조천록』은 이후 각 노정별로 묶어 지리지로 서술한 김덕승의 『천사대관』과 남이웅의 『노정기』, 그리고 지도를 삽입한 정두원의 『조천기지도』가 있다.

이러한 지리지 양식은 기행 사경의 성격을 가지는 해로사행 기록화도 함께 제작되었으며, 정두원의 『조천기지도』의 경우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함께 기록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더하였다. 이는 앞 시기의 일기체 산문 양식의 사행문학과는 변별되는 글쓰기 양식이다.

해로 사행의 시기는 ‘명청 교체기’로 조선 또한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요동치는 국제 정세의 모습은 지리지 양식의 사행문학 속에서는 전혀 서술되지 않고 도리어 노정 속 각 지역마다 변화하고 평화로운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공간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여긴다. 즉 등주 - 북경지역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의 경전·역사서·시문을 통해 가지고 있던 추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문지리지 양식을 통해 보편적 중화질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김덕승, 남이웅, 정두원이 이처럼 자세한 인문지리를 구축하면서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 본고는 『대명일통지』 이외에 논하지 못하였으며, 해로사행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등주 노정과 실제 그 지역을 답파한 사람들의 노정이 지리지 양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엄밀하게 살펴 보지 못하였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1. 원전자료

- 고전번역원 DB :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경정집』, 『소전집』,
『월사집』, 『계곡집』, 『화포조천항해록』, 『태천집』
- 남이웅, 『시복유고』
- 임기중 편, 『연행록속집』
- 안경, 『가해조천록』
- 정두원, 『조천기지도』
- 『대명일통지』

2. 논문

- 김영숙, 「명말의 중국사회와 조선사신의 외교활동: 김육의 『조경일록』과 『조천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1, 명청사학회, 2009.
- 문명순, 「경정 이민성의 시론」, 『한문학보』 11집, 2004.
- 박경은, 「경정 이민성의 시」문학-일상사 및 연행의 체험을 소재로 한 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5집, 2000.
- 배주연, 「명청교체기 조선문사 이안눌의 명사행시연구: 『조천록』(1601)·『조천후록』(1632)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38, 한국비교문학회, 2006.
- 이영춘, 「인조반정 후에 파견된 책봉주청사의 기록과 외교활동」, 『조선시대사학보』 59, 2011.
- 임기중, 「수로 연행록과 수로연행도」, 『한국어문학연구』 43집, 2004, 7~24쪽.
- 임기중, 「항해조천도의 형성양상과 원본비정: 이덕형 가문의 항해일기와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9집, 2005.
- 임형택, 「조선사행의 해로연행록-17세기 동북아의 역사전환과 실학」, 『한국실학연구』 9집, 2005.
- 조규익, 「죽천행록 연구」, 『연행록연구총서』 5, 학고방, 2006.

- 조기영, 「설정 이후의 『조천일기』 연구」, 『동양고전연구』 7집, 1996.
- 조창록, 「1632년의 해로사행과 홍호의 『조천일기』」, 『2014년도 온지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2014.
- , 「전식의 사행록과 해로 사행의 체험시」, 『동방한문학』 46집, 2011.
- 줄고, 「이민성의 『계해조천록』 소고」, 온지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 최윤정, 「명청교체기 조선문사의 사행체험: 홍익한의 『조천항해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1, 2005.
- 한명기, 「16, 17세기 명청교체와 한반도」, 『명청사연구』 22집, 2004, 37~64쪽
- 허경진, 「수로조천록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43집, 2009.
- 허경진·최해연, 「명청교체기 최초의 수로조천록-안경의 『가해조천록』」, 『중국학논총』 34집, 2011.
- 김지은, 「17세기 전반 해로사행문학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은주, 「조선시대 명청사행관계 회화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임영걸, 「壺亭 鄭斗源의 『朝天記地圖』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The Aspects of Writing the Literature of Seaway Envoying to Ming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 Focused on the styles of geographic books -

Kim, Chi-Hyoun

After Hугеum conquered Liaodong, Chosun could not send its envoys to Ming through the land routes anymore; thus, it sent its envoys to Ming through a new route of a seaway by landing on Dengzhou and heading for Peking. This seaway envoying was conducted 28 times for 17 years from 1621 until 1637 when diplomacy to Ming discontinued. Total 24 kinds of travel literature written about the envoying then have been transmitted until now.

The writing styles of those 24 kinds of travel literature are mainly poetry and diary-type prose. But particularly the works describing envoying from Dengzhou to Churo are written as the style of a geographic book based on anthropogeography. Lee Minseong's 『Gyehaejocheonrok』 strongly characterized as anthropogeography was later combined by journeys, and also, there are Kim Deokseung's 『Cheonsadaegwan』, Nam Iung's 『Nojeonggi』, and Jeong Duwon's 『Jocheongjido』 containing maps as geographic books.

This style's geographic books were made along with seaway envoying paints characterized as travel landscape painting, and Jeong Duwon's 『Jocheongjido』 records what he actually saw and heard, which added a more sense of realism to it. This is a style of writing differentiated from the diary-type prose travel literature in the previous era.

Key Words : Seaway envoying, Dengzhou, Pursuit of Churo, Anthropogeographical books,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Ming to Qing, Styles of geographic books